

[성명]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 폭력연행 끝나지 않은 내란을 윤석열 구속으로 끝장내겠다

경찰이 윤석열 체포를 요구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을 폭력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공수처가 고작 5시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시늉만 내는 상황에 분노했고, 1박 2일 째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오늘(4일) 12시 민주노총이 집회신고한 구간을 행진하던 중, 경찰은 제한구간이라며 가로막았다. 심지어 경찰은 조합원의 팔을 뒤로 꺾으며 길바닥에 짓누르다가 질질 끌면서 경찰차에 실어갔다.

경찰은 내란범 윤석열 호위무사 역할 중단하고 내란수괴를 체포하라. 민주노총의 요구는 오로지 단 하나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는 것이다. 국민이 실시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위법 행위를, 범법자인 윤석열만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민의 요구를 온 몸으로 받아 광장을 열고, 길을 열고, 공관의 문을 열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나섰다.

경찰의 조합원에 대한 폭력연행은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내란동조행위다. 경찰은 불법연행한 조합원을 당장 석방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윤석열과 동조세력을 구속 체포하는 투쟁에 반드시 종지부를 반드시 찍을 것이다.

2025.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